

【붙임 서식3】 활동보고서

## 북토피아 \_\_\_\_회 활동보고서

제출일 : 2020. .

작성자 :

동아리 운영정보			
동아리명	찬반 및 대화 토론 우수 사례	지도교수	(인)
모임일시		모임장소	
참석자			
불참석자			
오늘의 독서 토론			
도서명			
활동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주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론 내용(사진 포함)</li> </ul> <p>- A : 사회자 - B : 찬성 - C, D : 반대</p> <p>1.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형제도는 합당한가?</p> <p>&lt;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형제도에 찬성한다&gt;</p> <p>B : 부분적으로 찬성한다. 책에서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등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시행된 다양한 장애인의 감형 사례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는데, 나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의 감형은 합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외의 장애인의 감형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p> <p>그 이유는 시각 장애, 지체 장애 등과 같은 장애가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시력을 잃거나 청력을 잃어도 폭력, 살인, 강간 등이 범죄행위라는 것을 그들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으며, 오히려 이러한 장애와 범죄 행위는 별개의 영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형은 합당하지 않다.</p> <p>하지만 정신질환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환자라면 그들의 장애로 인해 범죄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중략) 따라서 이러한 정신질환은 항정신병 약물과 다양한 치료 요법으로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법과 항정신병 약물의 발달이 미흡했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한다면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판단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하고 판단된다면 감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p>		

사회자 : 네, 정신장애를 가진 가해자에게는 이부 감형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조현병이라는 구체적 질병명을 예시로 한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형제도에 반대한다>**

D : 사례를 검색하다 찾아보니 나온 게 일곱 개였다. 왜 감형을 했는지 봤더니, 감형 이유가 ‘장애인’이라서였다. 대부분이 지체장애인이었다. (예시중략)

아무리 지체장애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을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히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중략) 따라서 감형제도를 반대한다.

사회자 : 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형제도에 반대하며,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다. 라는 입장이었군요. 다음 반대 측 입장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 : 장애인의 범죄 사례를 조사해봤다 23살의 발달장애인이 중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다. 가해자는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 받았다. (중략)

또한, 성폭력 처벌법 제 6조가 장애인복지법으로써,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보호만 정해져있고, 그들의 후속 조치 즉 교화, 처벌의 이후에 관한 내용은 없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후에 어떻게 교화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감형해준다는 사실은 국민들의 이해를 받기 어렵다.

사회자 : 장애인의 감형제도에 반대하며 교화 사실 없이 감형해준다는 것은 국민의 이해를 받기 어려운 사항이다, 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찬성, 반대 측 모두가 자유롭게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C : 장애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장애인의 가족들이 대신해 죄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우리나라의 실정이라고 한다. 장애인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그를 처벌하지 못해 주변 사람들이 대신 벌을 받는 것이다. 또한, 교화되기 이전에, 잘못했다는 사실이 없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D : 맞다. 감형제도가 생겨난 배경은 이해하지만,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확실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가 지켜지지 못한 사례가 앞서 들었던 성폭력 범죄에 관한 것이다.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 한계의 제정이 필요해 보인다.

B : 강력범죄의 처벌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특히, 성폭력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 그렇게 생각한다. 하지만, 조현병을 비롯한 판단력 및 의사결정능력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C : 처음에는, 그 또한 감형제도를 받아서는 안 되는 대상이라 생각했으나, 찬성측 입장을 듣고 태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질병에 대해서는 감형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강력범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신질환 역시 감형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는 생각은 동일하다.

사회자 : 그렇다면 책 속에서 나오는 고려, 조선시대의 감형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D : 우발적 사고의 범죄를 감형해주는 것은 이해를 하나, 그 이후의 사정을 생각해보면 감형제도에 반대하게 된다. 한 번에서 그치는 사람은 잘 없다. 옛날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한다. (중략) 성폭력에 관해서는 더 그렇다. 그것이 과연 교화가 될까?

C : (중략) 주취감형의 의도는 이해하나,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감형이 절대 허용되면 안 된다 생각한다. 주취감형을 악용하는 사람이 충분히 많고, 주취가 아닌 다른 심신장애에서도 이를 악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옛날도 지금의 사례도 감형제도는 있어서 안 된다 생각한다.

B : 책을 읽기 전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복지 정책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 현대보다 과거가 더 열악한 환경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다. 과거에는 강력범죄도 마찬가지로 장애인에 대한 감형제도가 이루어졌었는데, 반대 측 입장을 듣고 보니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사회자 : 각자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찬성 측 입장은 정신질환 외의 장애인에 관련하여 감형제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반대하지만, 조현병과 같이 판단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에 대해서는 감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반대 측 입장,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형제도가 생겨난 배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강력범죄만큼은 감형이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찬성 측도 동의하셨습니다. 또한 양측 모두 장애인의 범죄에 대한 교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 소감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 : 토론 내용과는 별개로, 과거 장애인 복지 제도에 대해 크게 놀랐다. 이 책을 읽으면서 장애인을 위한 전문직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가 장애인의 자립에도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중략) 현대에도 과거처럼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서 스스로 스텝없이 다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p>C : (중략) 서로의 입장을 들어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은 역시 ‘교화’이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재범할 확률은 매우 높다고 한다. 이 확률을 낮춰주고, 장애인의 감형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 국가에서 보여줄 것은 ‘교화제도’라고 생각한다.</p> <p>D : C의 말대로 나 역시도 교화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 토론을 준비하며 현대의 감형 사례에 대해 조사했는데, 역시 피해자가 제일 걱정된다. 언론과 국가에서 가해자가 장애인이라는 타이틀에 집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조금 더 집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중략)</p> <p style="text-align: right;"><i>필요시 칸을 늘려 사용하세요</i></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음 활동 계획</li> </ul>
<p>지도교수 종합의견</p>	